SV Times

2018년 10월 행복나눔재단 웹진 SV Times 05호

1. Essay

**나눔은 규모가 아니라 관심이 중요하다**

**가수 루나 편**

나눔은 규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습니다. 나눔 활동을 하고 싶어도 모두의 기대에 못 미칠까 조심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기부 규모가 큰 분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나눔은 어쩐지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했죠. 저와 같은 또래인 친구들 역시 이런 이유들로 좋은 일에동참하고 싶어도 망설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고 문제들을 함께 마주했을 때, 그렇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때 더욱 커졌던 나눔에 대한 제 경험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작은 관심이 도움의 물결로 이어지다**

약 1 년 전, 어떤 소녀들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휴지와 신발 깔창을 사용한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여성복 브랜드와 함께 직접 속옷을 디자인해 판매 수익금으로 생리대와 속옷을 기부하는 ‘Girls Can Do Anything(소녀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생리대 업체가 제가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 ‘루나의 알파벳’에 무려 50박스의 생리대를 기부해 주셨습니다. 이런 도움의 손길이 더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또, 기부 받은 생리대를 먼저 전달할 기관을 찾아보면서 도움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미혼모들의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저의 작은 관심이었지만 도움을 주려는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유튜브 영상 <루나와 함께하는 착한 기부>편을 만들었죠.

영상에는 제가 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속옷을 디자인하는 모습, 그리고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방문해 생리대를 직접 기부하는 모습 등을 담았는데요. 특히, 직접 방문한 연예인은 처음이라며 감사하다고 울먹이시던 협회장님의 모습에 왠지 모를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미혼모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어요. 또한, 애초 계획대로 속옷을 완성하여 판매한 수익금을 미혼모와 소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덕분에 가능했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조금만 더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재능을 나누며 행복을 키우다**

제가 소속한 기획사 SM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가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마일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열정과 재능이 넘치는 아이들에게 춤과 노래를 가르치며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부유하지 못한 가정 형편으로 춤과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던 그 시절, 무작정 발레 학원을 찾아가 가르침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발레복과 슈즈만 사오면 가르쳐 주겠다는 선생님 덕분에 원하던 발레를 1년 동안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린 시절 저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재능을 나눌 수 있게 됐죠. 돌이켜보면 이 나눔은 발레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늘 기억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들로부터 오히려 배우는 점도 많습니다. 저의 작은 관심과 저와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모습에 ‘같이’의 가치를 배우고, 다시금 더욱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먼 훗날 개인적으로 춤과 노래를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도 생겼습니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었던 아이들 역시 저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나눔은 이렇게 나눌수록 커지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소한 관심을 나누는 삶을 꿈꿉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는 제 발걸음을 붙잡는 풍경이 있었습니다. 찬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건을 팔고 계시던 할머니가 유독 눈에 띈 것입니다. 따뜻한 음료를 건네 드린 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일어서려는 제 앞에서 소녀처럼 우시던 할머니. 어쩌면 이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생계를 위한 수입뿐만 아니라 허기진 마음을 달래줄 작은 관심이 아니었을까요? 이 생각은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쁜 생활로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조차 서로 모르며 지내는 우리들의 모습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공감할 수가 없고, 공감할 수 없다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며 힘든 사람을 마주쳤을 때 걸음을 한 번 멈춘다면,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지만 버림 받은 동물들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이렇게 일상에서 시작하는 작은 관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곁에서 함께하는 옆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기 위해 노력할 때, 함께 나누는 삶도 시작될 것입니다.

2. 소셜 현장 ‘S’가 간다

**행복나눔재단, 목소리를 기부하다**

**플레이백녹음실 프로보노 현장**

SK 프로보노\*는 구성원들이 보유한 직무 및 전문성을 사회적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이번에 행복나눔재단 구성원들이 목소리 기부로 이 활동에 참여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프로보노(probono):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로, 재능과 역량, 그리고 노하우를 공공을 위해 제공하는 활동 의미

**#S, 프로보노 현장에 가다**

두근두근. 녹음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참 낯선 곳인데요. 행복나눔재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기업 ‘알로하아이디어스’를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알로하아이디어스는 ‘담뿍이’라는 기기를 활용해 다문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요인으로 책 읽기가 쉽지 않은 독서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입니다.

담뿍이는 독서보조기기로 센서에 녹음스티커를 가져가면 미리 녹음된 책의 문장을 이야기해 주는데요.‘담다’의 담과 ‘Book’이 합쳐진 이름처럼 다양한 목소리의 음성책을 담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하는 목소리로 구현된 동화책을 통해 아이들은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와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로하아이디어스 담뿍이 제작**

STEP 01 : 녹음을 앞두고, 사전에 동화책 선정

STEP 02 : 함께 녹음을 진행할 조원들과 배역을 나눈 후, 동화책 숙지 및 연습 진행

STEP 03 : 녹음실 방문

행복나눔재단 구성원들은 목소리만으로 재주 많은 다섯 친구가 되어 기묘한 여행을 떠나기도 할 것이고 현명한 토끼가 되어 위기에 빠진 나그네를 도와주기도 할 것입니다.

\* 29명의 구성원들은 1인 2역을 하기도 하고, 한 역할에 몰입하기도 하며 총 12권의 76개의 역할을 목소리로 담을 예정입니다.

녹음한 책 수: 12권 / 참여 구성원 수: 29명 / 역할 수: 76개

**#발성 연습하기**

본격적인 녹음에 앞서 전문 성우님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책의 문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지만 동료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목소리를 키우고 감정을 싣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녹음을 해야 할 시간! 녹음실에 들어서기 전까지 조원들과 끝없이 호흡을 맞추며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녹음을 다짐해봅니다.

**#목소리 녹음하기**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아주 게으른 남자가 살고 있었어.” 마이크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어색한 것도 잠시. 점점 맡은 배역에 빠져들며 한 명의 어엿한 성우로

거듭납니다. 실수를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시 녹음할 수 있도록 녹음실 밖에서 엔지니어님들이 진행을 도와주니까 걱정도 부담도 NO!

맡은 역할에 몰입했더니 어느덧 이야기는 끝이나고 음성책 한 권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엽서쓰기**

녹음을 마친 후,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 전달될 엽서도 썼습니다. 비록 전문 성우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진심이 글과 그림이 되어 엽서 안에 담깁니다. 책을 받고 기뻐할 아이들을 떠올리며 엽서를 채우는 동안 어느새 마음도 행복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엽서를 읽으며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녹음을 마치며**

양진우 행복나눔재단

“순간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아이가 언어를 익히는데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한 일이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석 행복나눔재단

“ ‘과연 내 목소리가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며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예진 행복나눔재단

“ 처음 녹음실에 들어섰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프로보노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행복나눔재단 구성원들의 목소리 기부 프로보노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낯선 목소리를 꺼내는 생소한 경험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게 부족한 역량을 채워주고 참여자에게는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SK 프로보노는 함께 성장하는 활동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될 SK 구성원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3. 숨어있는 SV를 찾다

**OB와 YB의 만남, 써니 패밀리 : 어른이 된 써니를 만나다**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가 어느덧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SUNNY를 거쳐간 대학생 써니\* 약 7만여 명이나 되는 만큼 SUNNY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인이 되어서도 써니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OB 써니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써니: SK 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 활동자를 지칭

**우리는 써니패밀리**

지난 2017년에 런칭된 써니패밀리는 활동수료자(OB)와 현재 활동자(YB)가 나이, 소속과 무관하게 SUNNY의 이름으로 만나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사회변화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7월 둘째 주 토요일은 ‘써니데이’로 OB와 YB가 모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서울 지역운영팀 – 청소년 대상 학업 및 진로 멘토링

전주/전북 지역운영팀 – 아동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대전/충남 지역운영팀 – 대청댐 녹조 방지를 위한 미생물 흙공 뿌리기

이러한 써니패밀리의 활동 중 OB들의 재능기부\*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한 OB써니가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YB 써니를 위한 강연 및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변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YB 써니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인데요. 지난 9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강연 역시 기획, 홍보, 실행 면에서 실전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OB 써니, 강연장에 서다**

직장인에게는 소중한 주말임에도 전라도 광주의 강연장을 찾은 세 사람은 참여 소감을 기쁘게 전했는데요. 박청실 OB 써니는 활동했던 대학시절을 떠올리며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 기꺼이 참여했다’고 답했고, 배지현 OB 써니 역시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SUNNY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또, 최정열 OB 써니는 ‘멀리서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간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 활동 박청실 OB 써니(前좋은습관창조원 기업교육)

2011년 활동 최정열 OB 써니(삼성생명 세무)

2008년 활동 배지현 OB 써니(브로드팩토리 광고기획)

**성공적인 협업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방법**

-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 PPT 작성은 "보기 좋게"

강연 첫 시간은 박청실 OB써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호기심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안서 작성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주었습니다.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다양한 지원 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YB써니들은 이날 제안서 작성 노하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강연에 참석한 황수연 써니(24세)는 “제안서 작성을 해본 적이 없어 어려웠는데 이렇게 직접 강의를 들으며 작성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매너와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

- 상대가 선호하는 복장 및 태도 사전 조사

- 상대와 나의 공통점으로 공감대 형성하기

YB써니가 지원기관에 협업을 제안할 때 담당자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전략과 태도 역시 필요한데요. 이어진 강연에서는 최정열 OB써니가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매너와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스피치 방법을 전했습니다. 그는‘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실행을 위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자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일 새로운 고객을 만나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득을 해야 하는 직무 경험에서 나온 실질적인 조언이었습니다.

**2018 트랜드에 맞춘 온라인 광고홍보 방법**

- 대중들이 선호하는 모바일 동영상 시청에 주목하자

- 댓글 하나로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YB써니가 프로젝트를 널리 알려 많은 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배지현 OB써니가 온라인 광고 및 홍보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온라인에서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은 요즘,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영상을 꼽으며 아이디어 발상법 및 스토리보드 작성법을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SNS에 프로젝트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는 임정하 써니(23세)는 “임팩트 있게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궁금했는데 강연을 들으며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OB 써니들이지만 이 강연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약 4개월간 자신들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 등을 YB 써니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교육콘텐츠 개발 및 스피치 스킬 강화 교육 수료 등이 그것인데요. 그 과정은 배지현 OB 써니에게는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박청실 OB써니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 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후배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최정열 OB 써니처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준비할 만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SUNNY, 삶의 지표가 되다**

OB 써니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SUNNY를 하며 얻은 경험이 자신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배지현 OB써니는 지난 2008년 SUNNY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행복한모바일세상’에 참여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복지회관에 방문하며 휴대 전화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께 휴대 전화 활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 할머니의 가족들이 자신에게 편지를 써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와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편지를 읽으며 짧은 시간, 작은 노력이 다시 큰 의미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가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인이 된 후 다시 한 번 SUNNY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배지현 OB써니는 ‘재능기부를 통해 OB써니와 협업해 사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큰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행복한모바일세상2007년 시작,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의 정보 소외감을 해소하고 세대간 소통 범위를 확장하는 프로그램

써니 활동을 통해 사회적 편견을 깬 OB써니도 있었습니다. 박청실 OB써니는 2010년 활동 당시 장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IT 챌린지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시각, 청각, 정신 지체 등 각 장애청소년들이 실제로 컴퓨터 활용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컴퓨터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품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장애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동 후 3,4년 동안 보육원을 꾸준히 다니는 계기가 되었고, 교육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쁨과 재미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최정열 OB써니는 군대 전역 후 새로운 것, 의미 있는 것을 찾던 시기에 SUNNY를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 홍보하는 SUNNY 리더그룹으로 활동하며 개성 있고 열정적인 다양한 써니들과 만났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며 얻은 성취감은 최정열 OB가 오랫동안 품었던 연극인이라는 꿈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해결책 혹은 다른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써니를 통해 스스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써니패밀리, 사회변화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다**

써니패밀리의 재능 기부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렇게 SUNNY 활동에 대한 추억이 가득한 OB 써니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언제라도 YB 써니에게 힘을 더해줄 OB 써니가 있는 한 사회변화를 향한 기회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4. Trend & Review

**SK NEW SCHOOL 한국의 맛을 세계에 전하다**

최근 한식은 ‘웰빙’이라는 세계적인 외식 트렌드에 아주 잘 맞는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식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SK 뉴스쿨 출신 청년 셰프들도 건강한 한국의 맛과 멋을 세계에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여행자와 현지인 모두를 사로잡은 이들의 경쟁력과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두 청년 셰프들에게 들어봅니다.

**F&B 전문 직업인 양성소 SK 뉴스쿨**

SK 뉴스쿨은 푸드 분야 직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조리와 외식 서비스에 대한 무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정상 셰프 및 서비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과 탄탄한 기본기, 현장 감각을 위한 실습 위주 커리큘럼들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인재, 미래의 푸드 전문가를 길러냅니다.

**세계 곳곳에서 빛나는 SK 뉴스쿨 출신 청년 셰프들**

최승재 [SK 뉴스쿨 조리 2015 졸업]

현 이집트 팝업 레스토랑 요리사, 전 슈밍화 미코, 멘야미코, 백패커스 그룹 LA 푸드트럭

이상연 [SK 뉴스쿨 조리 2014 졸업]

현 프랑스 한국대사관저 요리사, 전 밍글스, 레스토랑 오늘

**[여기는 이집트]**

**홍해 바다를 바라보는 레스토랑을 열다! - 최승재 셰프**

의지의 한국인! 진정한 한식을 알리다

처음에는 향신료 교역상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세계 각국 식문화와 요리를 배워보자는 목표로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플리마켓에서 간단하게 한식을 팔며 여행 경비를 충당하자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반응으로 목표로 했던 매출을 달성했어요. 하지만 한식에 대한 첫 인상을 주는 요리사로서 이집트 현지인들에게 선보인 음식을 ‘진정한 한식’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웠죠. 본격적으로 현지인들에게 기억될 한식을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고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 제대로 한식을 알려보자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목표치에 4배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었고, 손님으로 온 현지 레스토랑 오너의 열정적인 반응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며 홍해 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좋은 위치에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재료 조사와 피드백 반영으로 만들어 낸 메뉴, 꽃게 짬뽕

‘현지 재료로 쉽게 만드는 한식’이라는 컨셉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식의 기본 재료인 고추장을 구하려면 수도 카이로까지 왕복 18시간 동안 야간 버스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 곳에서 정통 한식을 구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현지인들에게 한식을 맛보게 할 다양한 연구 끝에 대표 메뉴 ‘꽃게 짬뽕’을 만들어봤는데요. 이집트의 고춧가루는 한국에 비해 매우 곱고 매운맛이 강하지만 국물로 마셨을 때 목젖을 탁 치고 깔끔하게 사라지는 매운맛이라 매력적이었어요. 면 역시 여러 번의 실험 끝에 스파게티 면을 적절히 삶아 찬물에 헹구니 짬뽕 면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음식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죠.

결국 한국인 여행자들로부터 한국에서 먹던 것과 똑같다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고, 입소문이 돌면서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맛집이 되었습니다. 한식이 생소할 이집트인들에게 음식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한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식사 후 피드백을 받아 선호하는 맛과 재료를 파악해 이집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

현지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로 큰 장벽이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설렁탕을 팔아보고자 정육점에서 사골을 사왔는데 집에 와서 열어보니 잡뼈와 내장, 부산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정육점에 찾아가 물어보니 ‘개 사료’로 쓰는 줄 알았다며 음식물 쓰레기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태도에 화가 났지만, 결국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이 나라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현지 시장에 매일 방문하며 상인들의 문화를 실제로 보고 느끼며 그 세계 속에 녹아들고자 애썼어요.

결국 상인들과 친밀해졌고 아랍어를 배우면서 소통의 장벽을 극복, 점차 신뢰를 얻어 나중에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좋은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손님들에게 더 높은 질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죠.

세계 속의 한국을 바라보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식의 가능성을 봅니다. 최근 미국 요식업계의 신흥강자로 떠올랐던 패스트 캐주얼(Fast Casual)\*의 업태가 유럽과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 퍼지며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치폴레(Chipotle)’와 ‘쉐이크쉑(Shake Shack)’죠. 이들은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패스트 캐주얼 트랜드에 발맞춰 건강 및 질 좋은 식재료를 중시할 뿐만 아니라 가격, 환경, 지속가능성, 기업의 도덕성까지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 패스트 푸드와 캐주얼 다이닝의 중간 형태. 고객이 직접 보는 앞에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컨셉으로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양에서 아시아 음식은 ‘건강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식은 상대적으로 채소의 구성 비율이 높고, 기름진 음식이 적습니다. 또한, 식물성 재료의 다양한 활용과 발효 베이스의 감칠맛이 한식이 주는 가장 큰 매력이죠. 특히 조리시간이 길지 않고 다양한 채소가 들어간 메뉴가 많은데 비빔밥과 덮밥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어요. 재료 준비만 되면 빠르게 담아 판매가 가능하고, 다양한 채소 사용은 물론, 재료에 따라 무궁무진한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개성 있는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처럼 건강한 이미지를 살려 공략한다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Special Thanks to SK 뉴스쿨

4년 전, 요리를 업으로 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일반 대학을 갈지, 해외 유학을 떠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을 때 SK 뉴스쿨을 만났습니다. 1년이라는 단기간에 압축된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반했는데요.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즈음 SK 뉴스쿨 재학 당시 들었던 영어 수업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수업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주방과 레스토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롤플레잉 대본을 만들거나 정확한 리듬과 강세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연습했어요. 이 뿐만 아니라 조리과학, 외식경영론 등 이론과 한식, 프렌치, 이탈리안 등 조리 실습으로 알차게 구성된 수업은 저의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었고 매주 들었던 인문학 수업은 현지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영국으로 넘어왔는데요. 또 한 번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여기는 프랑스]**

**음식 자부심이 정점인 프랑스에서 한국의 맛을 외치다 - 이상연 셰프**

외교 무대에 한식 전도사로 서다

저는 프랑스 한국대사관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리사는 외교적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주재국 관련 인사나 타 국가 외교관들이 초청될 때 한식의 맛과 멋을 지키면서도 외국인의 입맛에 맞춘 한식을 선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늘 다양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적절한 간의 세기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서관저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한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찬을 마칠 때쯤 대사님께서 셰프를 소개해주시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는데,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을 때 우리나라 외교에 기여하는 것 같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문화의 도시에서 한식을 인정받는다는 것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강국이자 미식 국가입니다. 특히 문화의 도시인 파리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큽니다. 요리를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문화와 예술로 평가하죠.

쉬는 날이면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종종 미술관이나 각종 재단에서 하는 전시회에 가보곤 하는데요. 인기 있는 전시회는 오픈 시간에 맞추어 가도 긴 줄을 기다려 입장하게 됩니다.

음식 또한 하나의 문화로 여기는 이곳에서 한식당에 프랑스인을 비롯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한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때면 매우 뿌듯해요. 저 또한 한식을 만들고 알린다는 것에서 특별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죠. 음식 속에 담긴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이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는 현장은 언제나 저를 설레게 합니다.

한국의 장맛을 천천히 전하는 뚝심

프랑스 현지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한식은 간장 양념으로 재운 갈비입니다.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건 된장이나 고추장으로 만든 진한 찌개 종류에요.

제가 많은 프랑스인들이 좋아하는 발효가 많이 된 치즈를 기피하듯 이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장류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 보다는 프랑스인들이 이 맛에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된장을 조금 적게 사용해 국을 만들거나 고기, 생선을 절이는 식이죠. 또한,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크렘브륄레\* 같은 디저트에 장을 소량 사용해보며 서서히 그들이 한국의 장맛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죠.

\*크렘브륄레 : 차가운 크림 커스터드 위에 유리처럼 얇고 파삭한 캐러멜 토핑을 얹어 내는 프랑스의 디저트

파리의 트렌드로 한식을 바라보다

파인 다이닝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해 점점 효율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래 파리의 많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들이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듯한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간단하면서 빠르고 맛있는 비스트로나 와인 바 같은 형태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을 체감합니다. 짧은 준비 시간에도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를 하는 작은 비스트로나 와인 바에 늘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가볼 수 있는 브라세리(비싸지 않은 식당) 같은 곳에서도 만들기 간편한 요리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에 비해 한식은 보통 손이 많이 가죠. 그래서 보다 먹기도 편하고, 소화도 잘되어요. 또한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된 소스를 주로 사용하니 양념의 맛이 풍부하며, 정갈한 담음새가 장점이자 매력입니다.

이렇게 트렌드를 보다 보면 파인 다이닝이 사라져 가는 파리의 빈자리에 정성을 강조한 한식을 어필하면 어떨까도 생각하다가도, 한편으로는 한식 요리사로서 한식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든 후 해외의 여러 트렌드를 배우고 파악해야 세계적인 외식 트렌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현지 트랜드 속에서 한식을 강조하는 방법

파리에 있는 다수의 한식당들은 많은 프랑스인들과 외국인들로 붐비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위한 가벼운 개념의 식당들이라 아쉽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 오래 거주한 한국인들이 프랑스인들과 식사를 할 때 프랑스인들이 한식당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이러한 한식당들이 현지에서 한식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즘 외식 트랜드에 맞춰본다면 한식당의 형태가 너무 캐쥬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높은 퀄리티의 한식을 맛볼 수 있는 한식당이 생긴다면 한식에 대한 인상과 인식이 보다 풍성해질 거예요.

가령 빠르고 맛있는 비스트로나 와인 바 같은 형태를 접목한 한식당을 선보인다면 현지인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죠. 무엇보다 현지의 트랜드와 문화 및 정서를 잘 수렴하여 재해석한 한식당은 색다른 한식의 면모를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Special Thanks to SK 뉴스쿨

요리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스물일곱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요리를 접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요리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고민을 했어요. 그러던 중 친척의 추천으로 SK 뉴스쿨에 지원을 했고 입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에게 SK 뉴스쿨은 도전과 배움의 터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과 훌륭한 선생님들, 편리한 조리시설과 좋은 식재료를 직접 접하고 사용해볼 수 있는 곳이었기에 1년이란 시간은 무척 짧고 아쉬웠습니다. 특히, 조리 전공자가 아닌 제가 글로벌 호텔 워커힐에서 실습을 하며 고급 요리를 접하고, 셰프님들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서 키운 용기는 세계 무대를 향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SK 뉴스쿨에서 만난 선생님들과 셰프님들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점을 공유하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중해를 바라보는 뜨거운 사막 한 가운데, 그리고 세계적인 미식국가로 인정받는 수도에서도 꿋꿋이 한식을 널리 알리며 보다 온전한 향미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SK 뉴스쿨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2019 SK 뉴스쿨 모집은 12월 1일 시작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The Social Innovators

**당신의 소비가 세상에 비타민이 됩니다**

**비타민엔젤스 염창환 대표 편**

2장 : 죽음을 앞둔 환자가 젊은 호스피스 의사에게 내준 두 가지 숙제

3장 : 환자가 병을 진단받는 순간부터 임종까지 함께하는 의사가 되어줄 것

4장 : 그리고, 치료에 가장 도움이 됐던 비타민을 연구해 줄 것

5장 : 이 당부를 잊지 않은 호스피스 의사는 비타민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고

6장 : KOREAN ASSOCIATION　FOR VITAMIN RESEARCH. 국내로 돌아온 후, 대한비타민연구회를 만들게 됩니다.

7장 : 현재 대한비타민연구회 회장이자 비타민엔젤스 대표인 염창환 박사 이야기입니다.

8장 : 그는 비타민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부에까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9장 : 2005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아프리카에서 한 비영리 단체가 보급한 비타민의 놀라운 효과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10장 : 한국에도 비타민이 꼭 필요하지만 형편 때문에 비타민을 사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많지... 그는 아이들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영양 결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아이들을 떠올립니다.

11장 : 어떻게 하면 많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비타민을 기부할 수 있을까?

12장 : 고민을 거듭하던 염창환 박사는 신발을 기부하는 유명 브랜드 스토리북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장 : One for One / 신발이 하나 팔릴 때마다 하나를 빈곤국가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회사처럼

14장 : 어려운 이웃에게 비타민을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 ‘비타민엔젤스’를 창립했습니다.

15장 : 비타민엔젤스는 소비자가 비타민 제품 한 개를 구매하면 같은 제품 한 개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16장 : 일상 속 소비가 곧 기부로 이어지는 착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 하지만, 수익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기부하는 회사를 모토로 출발한 비타민엔젤스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18장 : 감정에 호소하는 마케팅이란 오해부터 제품의 성분 함량 의혹까지 그 진심을 매도하는 사람들 역시 많았기 때문입니다.

19장 : 처음 품었던 생각 그대로 5년 동안 흔들리지 않으니까 결국 진심이 통하더라고요.

20장 : “기부내역 100%공개” 원료 공개 품질 향상 / 비타민엔젤스의 지속적인 노력은 인터넷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었고 매출도 신장세를 보였습니다.

21장 : 그렇게 5년 동안 기부한 비타민만 19만 4630개. 이는 27억 3천 만원 상당의 비용입니다.

22장 : 빈부격차가 영양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등한 건강권을 위해 그는 말합니다.

23장 : “당신의 소비가 세상에 비타민이 됩니다.”

6. SV, 세계는 지금

**프로보노 편**

프로보노(pro bono).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 활동입니다. SK 프로보노도 SK 구성원들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사회적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도 소속 직원들의 대외 프로보노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미국의 프로보노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있는 ‘탭룻재단’은 2001년 설립 이래 4천 6백여 개 사회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150만 시간의 재능 기부를 연계했으며 그 가치는 1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CSR wire, 2016)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했던 탭룻재단의 한 관계자는 “세계 5위 제약회사인 글락소스 미스클라인(GSK) 중간관리자의 90%가 프로보노 활동 이후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며 기업들의 프로보노 참여를 적극 추천했는데요. (더나은미래, 2014)

탭룻재단이 발행한 ‘Building Modern Day Leadership Through Pro Bono(프로보노를 통한 리더십 구축, 2018)’에서도 세계적인 금융그룹 맥쿼리 그룹과 함께 만든

프로보노 프로그램 ‘Civic Edge’ 사례를 통해 역량 향상 툴로써 프로보노의 영향력 및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맥쿼리 그룹 직원들은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전문가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기부금과 자원봉사자 데이터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단계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비영리 단체에 자원봉사자 참여를 25%나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 맥쿼리 그룹 관리자 91% 이상이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으로 프로보노를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의 피제라 글로벌(PYXERA Global)\*도 글로벌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미국 내 다양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해외에서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PYXERA Global: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 다양한 기업, 정부 조직,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 피제라 프로그램 관리자인 아만다 맥아더(Amanda MacArthur)는 ‘Three Ways Companies Build Better Leaders with Global Pro Bono(글로벌 프로보노와 함께 하는 리더십 제고 방안 3가지)’라는 기사를 통해 글로벌 프로보노 활동은 회사들이 훌륭한 리더를 양성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 개척을 위해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리더들을 해외에 파견하지만 리더십 역량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들이 현지의 우수한 호텔에 머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지역의 실질적인 소비자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나 NGO와 함께 도전적인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통찰력 및 전략적 사고 등 역량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다음의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프로보노 프로젝트 파트너 찾기,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하기,

셋째, 도출한 인사이트를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탭룻재단과 피제라 글로벌 사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7. Social Talk Talk

**[스브스뉴스] 평생 치킨 못 먹게 된 20대가 저지른 일**

온라인 채널 스브스뉴스에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출신 소셜벤처 ‘맛있저염’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맛있저염이 풀고 있는 사회문제와 함께 두 공동 대표가 말하는 KAIST 사회적기업가 MBA의 좋은 점을 알아보세요!

**[MEDIA SK] 꿈꾸는 청년들의 둥지 ‘만인의꿈’**

신촌에 가면 꿈꾸는 청년들이 모여 사는 ‘둥지’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버팀목이자 생활의 터전인 이 둥지는 올해로 22개가 되었는데요. 둥지를 만든 주인공은 또래 청년들이 꿈을 찾고, 마침내 이뤄내기를 간절히 응원하는 사회적 기업 ‘만인의꿈’입니다.

**행복얼라이언스, 즐거운 기부 축제 ‘2018 행복얼라이언스 DAY - 함께해서행복해’ 개최**

연말을 앞두고 즐거운 나눔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기업과 개인이 함께 만드는 사회변화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가 지난 27일 부산에 이어 11월 10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2018 행복얼라이언스 DAY - 함께해서행복해’를 개최합니다.

토크&뮤직 콘서트, 플리마켓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방송인이자 사회적기업가인 ‘알베르토 몬디’, 가수 ‘루나’ 등 일상 속 나눔의 가치 실현하고 있는 유명인과 약 50여개 소셜 벤처가 함께하며, 모든 프로그램을 기부에 연계한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SK 뉴스쿨, 1년 간 성장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선보이다**

2018년 졸업을 앞둔 SK 뉴스쿨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성대한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SK 뉴스쿨은 조리 및 외식서비스 등 푸드 분야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난 1년 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구성한 11개 식음료 코스를 약 3시간 동안 선보인 비교적 큰 규모의 식사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F&B 연회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한 데 큰 의미가 있었고, 조리와 서비스의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따뜻하고 의미 있었던 현장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행복나눔재단 에디터그룹의 공정무역 제품 리뷰기**

"공정무역 제품은 왠지 비싸기만 한 것 같다?", "공정무역 상품은 왠지 내 입맛에는 안 맞을 것 같다?' 의문을 품은 행복나눔재단 에디터들이 직접 공정무역 제품을 먹어봤습니다. 공정무역 대표 제품인 커피와 초콜릿부터 에디터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은 디저트 제품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행복나눔재단 2017 연차보고서, 세계 최대규모 ‘ARC어워즈’서 대상 수상**

행복나눔재단의 연차보고서(Annual Report)가 ‘제 32회 ARC 어워즈(ARC Awards)’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ARC 어워즈는 기업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독립 시상기관인 미국 머콤사(MerComm.Inc)가 주관하는 연차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경연대회입니다. 올해에는 전 세계 34개국에서 2,198개 작품을 출품하며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행복나눔재단은 총 58개 대상 시상 부문 중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s)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네요.